

‘로컬+청년’ 정책 추진하는 지자체들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2023.5.8.

인천시 인구가족과
2023.5.24.

전라남도, 지역자원·특산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전라남도가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창업 단기 집중교육 과정을 5월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타 시·도 및 전남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100팀 130명을 선정하였다. 이번 교육 과정에는 선정 팀 중 일부가 우선 참여하였으며, 현직 스타트업 CEO의 창업 관련 기초 지식 강연과 비즈니스 모델 설계·구체화 실무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자금조달 전략 분석, 리더십,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1 대 1 멘토 강의도 진행되었다.

한편 선정 팀은 교육 수강에 앞서 2개월 동안 전남 지역의 지역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지역자원 조사 활동을 벌였다. 도는 1차로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우수 팀에 재료비, 인테리어비, 사무실 임차비 등 사업화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또 사업화 과정을 검토해 성공 가능성이 큰 25개 팀에는 사업 고도화 자금을 최대 5,000만 원 지원하고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멘토링 등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지역자원 활용 창업하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인천광역시시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인 강화군·옹진군·동구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36개 팀을 선발하였다.

인천시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아이로컬(I^Local)’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강화군·옹진군·동구 지역에서 각 12개 팀씩 총 36개 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36개 팀은 팀별로 최대 5,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5월 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지역활동가와 연계한 지역자원조사, 네트워킹, 선진지 탐방 등에 있어 시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창업에 필수적인 지역 자원조사를 3개월간 팀별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창업 아이디어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사업의 타당성을 가능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교육 수료생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재무·회계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턴창업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으로 등록되어 센터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를 받거나 우수기업 추천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